

전북, 바이애슬론서 선전

전국장애인동계체전 2일차...

중거리 7.5km 경기서
금·동메달 각각 획득
권상현, 대회 2관왕 달성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13일~16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회 2일차를 맞았다.
전북도 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23명, 임원 및 관계자 27명 등 총 50명이 참가했다.
2일차 바이애슬론에 출전한 전북도 선수단은 중거리 7.5km(복사 5발 4회) 경기에서 금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권상현(지체/입식) 선수는 어제 경기에 이어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또 김정빈(시각/입식) 선수는 동메달 획득하며 선전했다. 전북도 선수단은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또 알파인스키 SL(회전경기)에서 이기료(청



(사진 왼쪽부터)권상현 선수, 김정빈·제갈향민 선수, 양동희·최선웅 선수.



각입식) 선수가 7위, 권효석(지체/좌식) 선수는 실격 처리됐다.
쇼트트랙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경기도 선

수)으로 전경기가 취소됐다.
한편 크로스컨트리스키가 15일 시작된다. 이 경기에 권상현(지체/입식), 김정빈(시각/입식)



선수가 출전한다. 특히 권상현 선수는 대회 3관왕이 기대(4관왕 목표)된다

/장은성기자



‘전북 펜싱 간판’ 권영준 국제월드컵선수권서 동메달

남자 에페 단체전 출전

전북 펜싱 간판 권영준(익산시청)이 국제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4일 전북펜싱협회에 따르면 권영준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대회 남자 에페 단체전에 출전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박상영(울산시청), 장효민(울산시청), 김명기(화성시청)와 단체전에 나선 권 선수의 이집트를 4대 42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개 최국 러시아에 39대 40으로 아쉽게 석패했다.
이에 3~4위 순위결정전에서 남자 대표팀은 베네수엘라를 42대 39로 승리하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권영준은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에페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장은성기자



(사진 왼쪽부터)스키 종목 남자 일반부에 출전한 김재호씨·오창규씨, 여자 일반부에 출전한 김지연씨와 김영숙씨.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을 설원 질주의 추억 무주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개최

지난 10~11일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제8회 무주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가 열렸다.
전주매일신문(대표 조봉성)이 주최하고 전북 스키협회(회장 김국진)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치러졌다.
이날 대회는 스키와 스노보드 두가지 종목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은빛 설원에서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았다.
스키 종목에서 김재호·오창규씨, 김지연·김영숙씨가 각각 남자 일반부 1~2위,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역수칙 준수 상태에서 치러져

여자 일반부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초등 남자부에서는 심승민군이 1위, 김가빈군과 천지우군이 각각 2~3위를 차지했으며, 초등 여자부에서는 김초연양이 1위, 조하윤양과 조연서양이 2~3위를 차지했다.
중고등부에서는 김현희양이 1위를 달렸다.
스노보드 종목에서는 유재홍씨가 남자 일반부 1위를 조규영씨와 김대영씨가 2~3위를 차지했으며, 일반 여자부에서는 정경은씨

가 1위, 진이정씨가 2위, 김선주씨가 3위를 달성했다.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 대회사에서 “무주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전국 동계체전 등 굵직한 국내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국내 동계스포츠의 요람”이라며 “무주를 전국에 알리는 것 역시 지역정론지의 소명이란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환영사에서 “코로나19

로 인해 선수 여러분께서 이번 대회 개최가 주는 의미는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셨다”며 “이번 대회가 실력 발휘의 장이 되길 바라며 대회를 통해 힐링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국진 전북 스키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 시즌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참가선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힘든 시기 보내는 팬들에 “응원할게요”

최민정, 위로 편지 보내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에이스 최민정(24·성남시청)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준비에 한창이던 지난달 힘든 시기를 보내는 팬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누리꾼은 “한창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가 평소 응원하던 최민정 선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영상을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다고 적어 보냈다”며 “편지를 보내고 며칠 뒤 등기우편으로 답장이 왔다. 편지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사연을 소개했다.
최민정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대표팀 동료였던 심석희(25·서울시청)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 코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는데, 최민정을 향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의 충고를 하겠다는 뒤앙스의 내용도 있었다.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최민정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부상 약재도 있었다. 2021~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에서 무릎과 발목을 다쳐 2차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최민정은 힘든 시기를 겪는 팬의 편지에 정성스럽게 답장을 했다.



쇼트트랙 대표팀 최민정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팬에게 보낸 위로 편지.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민정은 지난 달 9일 팬에게 위로 편지를 적어 보냈다. 자신의 사진이 담긴 사진자에 사인과 함께 “응원할게요”라는 문구를 적었다.
최민정의 매니저먼트사인 올댓스포츠 관계자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민정 선수가 보낸 것이 맞다. 사진지도 매니저먼트사에서 제작해 준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꼭 필요한 스타’

김아랑, 만안니로 동생들 도와
쇼트트랙 여자 3000m 은메달
한국 여자선수 최초 3연속 계주 입상

화려하진 않지만 팀에 꼭 필요한 선수 지난 10년 간 김아랑(고양시청)이 그랬다.
김아랑은 13일 중국 베이징 개피탈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최민정(성남시청), 이유민(연세대), 서휘민(고려대)과 호흡을 맞춰 4분03초627으로 결승선을 통과, 네덜란드(4분03초409)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부터 2006년 토리노 대회까지 4연패를 일군 한국은 2010년 밴쿠버 대회 때 실격으로 잠시 계보가 끊겼지만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에서 정상상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각종 약재를 넣고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치 때부터 다시 시작된 메달 행진에는 항상 김아랑이 있었다.
8년 전 김아랑은 박승희, 조해리, 공상정, 심석희와 호흡을 맞춰 우승에 기여했다. 평창에서는 최민정, 이유민, 김예진, 심석희가 그의 파트너였다. 두 대회 연속 출전은 김아랑과 심석희 뿐이었다.
김아랑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대표 선발전을 5위로 통과하면서 다시 한 번 단체전 멤버로 당당히 입성했다. 세 번



의 올림픽을 거치면서 든든한 만안나가 된 김아랑은 뒤에서 후배들을 이끌면서 은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쟁쟁한 선수들이 워낙 많아 태극마크를 다는 일조차 쉽지 않은 국내의 치열한 상황을 떠올리며 김아랑이 얼마나 꾸준히 정상급 기량을 유지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베이징 시상식까지 밟으면서 김아랑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역사를 썼다. 지금까지 3연속 계주 메달을 목에 건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전 이경, 진선유 등 쟁쟁한 선배들도 이루지 못한 일을 김아랑이 했다.
김아랑은 세 번째 대회에서 은메달 획득 후 “준비한 걸 다 보여주자고 말한 뒤 들어왔는데, 속 시원하게 다 하고 나온 것 같다. 은메달도 값지다”며 활짝 웃었다.
/뉴스1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 산행활동 지원

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 종합정보 데이터
공공포털에 본격 개방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지원한 ‘숲길 종합정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본격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는 지난 2020년 산림청 숲길 연결망 구축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산행 계획 및 관심지점을 기초로한 데이터이다.
오감민족숲길정보, 백두대간 종주·정맥코스 정보, 9경맥 종주코스, 100대 명산 코스 정보 등의 데이터를 2021년에 가공해 2022년 1월에 개방했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 개방을 통해 다른 데이터 및 경로탐색,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 산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소로 안내하는 앱 개발에도 활용 가능하다.
사용자(인기, 고령층, 반려동물 동반이용 등) 맞춤형 코스정보를 제공해 등산·트레킹 활동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숲길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창업 활성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장관상 표창(2021.12.31.)을 진행했으며, 그 중 하나로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개방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선정됐다.
전병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센터는 숲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전국 4,400개의 산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는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 및 숲길정보·기반 구축실(042-620-6340)로 문의 가능하다.
/유효상 기자